

국회, '사학 제 식구 감싸기' 대응 사립학교법 개정

비리관련 사립법인은 전북교육청의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 처분요구를 '온전히' 수용한 적이 없을 정도다. 사립학교와 법인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자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 징계요구 2014년 이후 40건 중 수용한 것 2건 뿐
징계로 볼 수 없는 '불문경고·경고·주의조치' 일삼아
공립 징계 예측 가능·균형어린 징계… 사학 법인마다 징계결과 다를 수 있어
국회 개정안 통과… 외부위원·시정명령 등 3회 이상 위반시 폐쇄 등 조치

▲ 사립법인의 비리식구 감싸기… 도교육청, 힘없이 맴돌았땅

2014년 1월~이달 현재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처분요구가 4건이 있었지만 각 법인은 '해임', '정직', '경고와 주의' 각각 1건으로 낮춰 의결한 바 있다.

또한 도교육청의 '해임' 처분 요구에 대해 해당 법인은 '정직'으로 떨어뜨렸으며 도교육청의 '정직과 감봉', '경책'의 각종 처분요구에 관련 법인은 '감봉'과 '경책', '불문경고', '주의' 등으로 무더기 하향 징계하는데 그쳤다.

도교육청의 해당기간 40건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감봉'건과 '경책' 1건 등 총 2건뿐이다.

교내 실권을 갖고 있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징계처분 현황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2008년~2014년 6월 현재 전북교육청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각각 12건, 9건이었다.

학교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 자체 경감한 경우는 3건, 행정실장의 경우 징계 미이행 건은 1건, 자체 경감한 경우는 3건으로 조사됐다.

▲ 사립학교 징계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경책'으로 규정됐다.

징계 유형은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하는데, 제1조2에서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경책을 말한다.

정직은 1~3월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 신분은 보유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가 감하게 된다.

감봉은 1~3월의 기간이며 보수의 1/3을 감하는 징계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유형 외 '불문경고와 경고, 주의조치'는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도내 사학은 도교육청의 중징계처분에도 무더기 (불문)경고 조치 등을 일삼고 있다.

▲ 사립과 비교되는 공립과의 인사형평성 논란 끊이질 않아

반면 공립은 어떻게 될까.

지난 2012년 폭행 등에 의해 '파면' 의결된 B교사의 경우 징계안을 수용하고 그대로 교단을 떠날수밖에

없었다. 사립학교 A교사와 유사한 시안으로 동일한 징계를 받았지만 결과는 영 딴판이다.

누가 보고 들어도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수밖에 없다.

공립의 경우는 1개의 동일한 징계위원회가 설치돼 해당자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시안을 비교해 비슷한 사건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균형어린 징계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립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마다 위원회의 기준과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법인과 학교마다 징계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국회,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등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립학교는 폐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징계위는 앞으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야 한다.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현재 사립학교(초·중·고교와 대학) 교원징계위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부 교원과 법인이사만 위원으로 임명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외부위원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에 전문가 출석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시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교원징계위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자·전문가 등이 위원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고민형 기자



점대화 사학기획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악 반대 및 사학비리 비호 인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가치에 같이를 더한 행복을 전합니다

이웃사랑의 가치를 소중히여기는 완주으뜸상품권이
완주군민과 같이 행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시옹한 완주으뜸상품권이
우리이웃의 행복지킴이입니다.

완주군민과 함께 행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시옹한 완주으뜸상품권이
우리이웃의 행복지킴이입니다.

완주군민과 함께 행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시옹한 완주으뜸상품권이
우리이웃의 행복지킴이입니다.

완주으뜸 상품권 | 완주군내 소재한 모든 농협에서 액면금액의 3%를 할인 판매

완주군민과 함께 행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시옹한 완주으뜸상품권이
우리이웃의 행복지킴이입니다.

Q 완주으뜸 상품권이 무엇인가요?

완주군민과 함께 행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시옹한 완주으뜸상품권이
우리이웃의 행복지킴이입니다.

Q 완주으뜸 상품권 어디서 구매하나요?

지금 바로 지역농협에서 구매하셔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왜? 완주으뜸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우리 지역에서의 소비가 늘어나야 내자녀 우리이웃들의 일자리가 생기며 내가 사용한 완주으뜸상품권이 완주 경제를 살립니다.